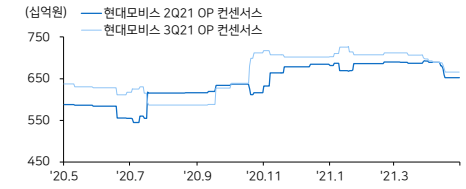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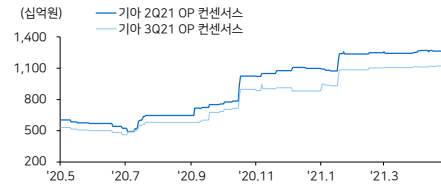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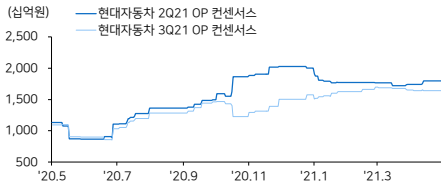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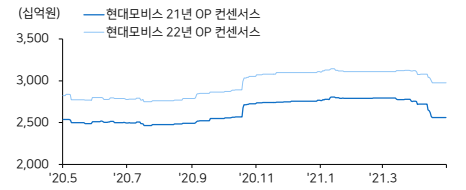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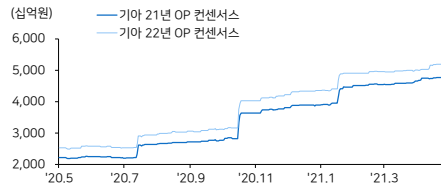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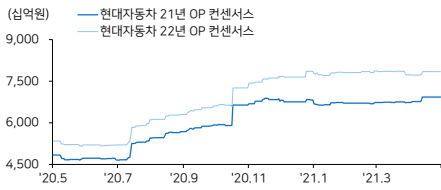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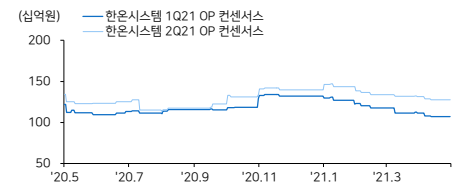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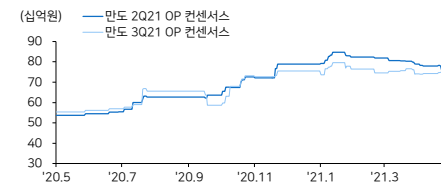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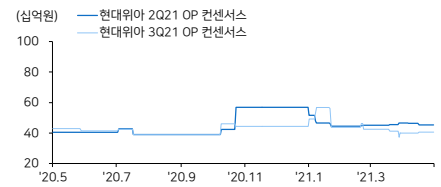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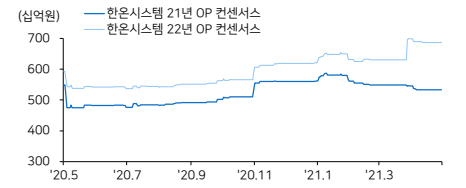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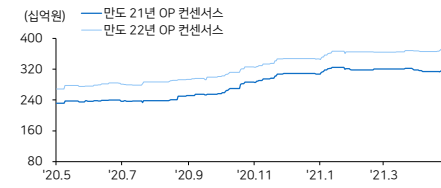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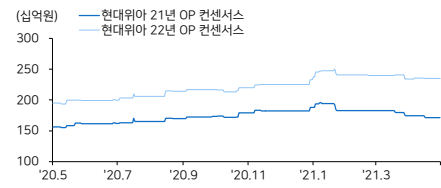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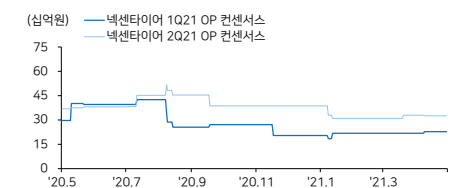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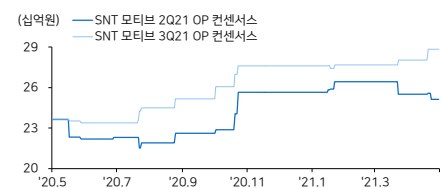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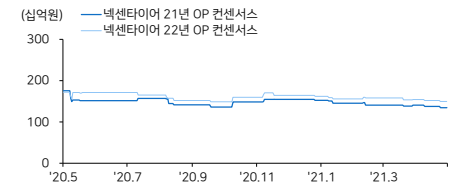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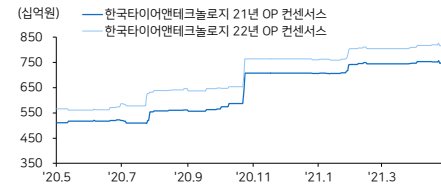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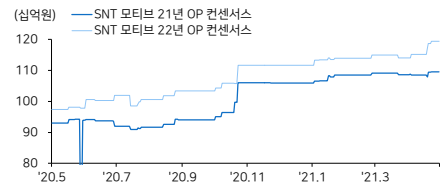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삼성전자 · 현대차,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손잡는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삼성전자, 현대차 등은 13일 차량용 반도체 수요 · 공급 기업간 연대 ·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차 핵심 반도체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데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 <https://bit.ly/3oeQ3ja>

현대차의 '로봇개' 스팟이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에 투입됐습니다 (BLOTER)

포스코건설이 터널공사 현장에 보스타디내믹스가 제조한 자율주행 로봇 '스팟'을 투입할. 이 로봇은 발파 작업 직후 인력이 투입되기 전까지 낙하위험이 있는 암반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https://bit.ly/3uON7Ms>

차량용 반도체 대량 장기화에 맞 자동차업 '영웅' (조선비즈)

미국 정부는 지난 수요일 4월 CPI를 발표하며 전반적인 자동차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함. 반도체로 인한 공급 부족, COVID19로 억눌렸던 소비심리 회복, 중고차 가격 상승 등이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https://bit.ly/2R8GCVp>

머스크 '테슬라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대략 한 달 뒤 출시' (연합뉴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 FSD) 구독 서비스'를 대략 한 달 뒤에는 출시할 것이라고 밝힘. 미국 매체 일렉트릭은 "출시 시기를 그다지 확실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고, 로이터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 <https://bit.ly/3uJvZHY>

도요타 뒷발서 현대차 일냈다...1억 베트남 후시장 2년 연속 1위 (매일경제)

올해 1~4월 베트남 자동차 판매실적은 10만1309대로 전년 동기 대비 58.0% 증가한 가운데, 현대차의 베트남 현지법인 현대판공이 2만2424대를 판매하며 시장점유율 1위(22.1%)를 차지함. <https://bit.ly/3uN9WQz>

현대차 '모빌리티 SW 인제 대규모 선발' (서울경제)

현대차그룹이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로보틱스, 차량 개발 등 11개 분야에서 대규모 채용에 나선. 관계자는 "연구개발인력 채용은 핵심 인재 확보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https://bit.ly/3fb5pG>

중 자율주행 기업 '위라이드', 日 닛산 · 미쓰비시 날개달고 수도권 투자 유치 (조선비즈)

중국 주요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인 '위라이드'는 닛산, 미쓰비시, 르노 등 완성차 OEM에게 수백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기업가치는 약 33억 달러로 평가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함. <https://bit.ly/3ob5fFo>

애플, 노스캐롤라이나 택한 진짜 이유는?...'애플카 개발' (THE GURU)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을 고려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를 신사옥 거점으로 정적었다는 관측이 나오. 노스캐롤라이나의 고급 인재와 강력한 자동차 공급망을 활용해 애플카 생산에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라는 분석. <https://bit.ly/3uJvZy3>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 아닌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